

지산유원지 모노레일 불안한 재가동 우려

업체측 30년 넘은 시설 일부 보수후 영업허가 전 검사 통과
동구 부랴부랴 안전대책 마련…“구조물 진단 재실시할 것”

10년 넘게 방치돼 있던 광주시 동구 지산유원지 정상부의 관광열차(모노레일)가 조만간 재가동할 것으로 보여 안전사고가 우려된다. 관할 관청인 동구는 안전대책을 세우지 못한 것은 물론 건축물 인허가 여부 등 기초적인 내용도 파악하지 못한 채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이다.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안전 사고가 잇따라 시설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지산유원지 관광리프트 운영업체 소유로, 1980년대 만들어져 구조물 노후화가 심각한 상황이다.

6일 동구청에 따르면 지난달 중순께 ㈜나경인터내셔널(이하 나경)이 지산유원지 정상부에 있는 모노레일의 영업을 허가해 달라며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의

안전검사 합격 통보서를 제출했지만 ‘편의 시설이 부족하고, 관련 서류가 미흡하다’라는 이유로 반려했다.

관광진흥법에 따라 유기사설·기구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기관에서 영업허가 전 검사를 받아야 하는데, 나경 측은 이를 통과했다는 것이다. 나경은 지난 7월 1차 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뒤 일부 시설을 보수해 지난달 3차 검사에서 최종적으로 ‘적합’ 판정을 받았다.

지산유원지 모노레일은 1980년 첫 운영을 시작했으나 1990년대 후반 들어 운영업체의 부도 등으로 인해 운영을 중단하다가 지난 2005년 정식으로 폐업했다. 이후 10년 넘게 방치되면서 등산객들로부터 흉물이라는 지적을 받아왔지만 동구는 그동안 대책을 마련하거나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동구는 이날 현재까지 모노레일 등 주변 기초 시설들이 불법인지, 합법인지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가 부랴부랴 대책마련에 들어간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80년대 도시기본계획 시설상 유원지로 허가가 났지만 2005년 폐업 신고를 했고, 관련 건축물 대장 등이 확인되지 않아 시설들에 대한 판단 기준이 확실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안전 검사를 통과했다고 하더라도 구조물이 오래돼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허가 전에 나경과 협의해 구조물 진단을 다시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추가 구조물 진단을 강제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업체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행정소송도 진행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지난달 추락 사고가 발생한 지산유원지 리프트의 시설 개선에 대한 동구와 광주시

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광주시 등은 ‘지산유원지 리프트 특별 점검반’을 구성해 지난달 23일 1차 회의를 개최했다. 교수, 교통안전공단 관계자, 리프트 시공회사 등 전문가 5명이 참석한 회의에서는 타 시도의 리프트에 비해 안전성 등이 떨어진다는 지적과 함께 리프트 연결장치, 안전장치, 안전 그물망 등의 전면 개보수와 업체의 정밀한 정기 점검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 됐다.

하지만 동구와 광주시는 지산유원지 리프트가 현행법에 따라 교통안전공단이 실시하는 안전검사를 통과하면 시설 개보수 등은 강제할 수 없기 때문에 A업체가 운영을 하더라도 크게 문제 삼을 수 없는 상황이다.

동구 관계자는 “안전을 높이기 위해 시설 개선에 대한 방법을 찾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까지는 운영 업체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다.

/김정민기자 kki@kwangju.co.kr

조영표 광주시의회 의장 피의자 신분 소환 조사 교사 채용 사기 연루 의혹

광주지역 사립학교 채용 사기에 연루된 의혹을 받아온 조영표(55) 광주시의회 의장이 경찰에 소환됐다.

광주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6일 조 의장을 사기혐의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벌였다고 밝혔다.

조 의장은 지난 2011~2015년 광주지역 사립고 3곳에서 이뤄진 교사채용 사기 사건과 관련된 인물과 부적절한 돈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조 의장의 고교 동창인 이모(55·수감)씨는 지난 2012년 1월 교사채용을 해주겠다며 정모(54) 씨에게서 1억원을 받아 가 로했다. 이 사건 조사과정에서 경찰은 조 의장이 동창인 이씨가 돈을 돌려주지 않으면 대신 갚아주겠다고 정씨에게 7500만원 짜리 차용증을 써 준 것을 확인했었다.

경찰은 조 의장이 벌리지도 않은 거금을 갚겠다는 차용증을 써 준 점 등으로 미뤄 이씨가 받은 1억원 가운데 일부가 조 의장에게 흘러들어가 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수사를 벌여왔다.

조 의장은 이날 조사 과정에서 차용증을 써준 경위를 묻는 경찰 질문에 “이씨가 돈을 갚겠다고 했고, 친구 입장이라 어려운 처지를 외면할 수 없었다”며 “사기 부분은 전혀 몰랐고, 사실을 알았다면 차용증을 써주지 않았을 것”이라고 결백을 주장했다. 경찰은 전했다.

/김형호기자 khh@kwangju.co.kr



불법투기 쓰레기 많기도 많네

광주 북구청 직원들이 6일 임동 일대 주택가 골목에 불법 투기 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다. 북구는 이날 관내에 무질서하게 버려진 쓰레기를 대대적으로 수거하는 등 대청소를 했다.

/김진수기자 jeans@kwangju.co.kr

출소하니 범서방과 소속…폭력단체 가입 무죄

서울고법 형사6부는 범서방파에 행동대원급 조직원으로 가입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이 선고됐던 A(42)씨의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고향 선배의 권유로 20세였던 1993년 조직에 발을 들였다. 그는 범서방파를 들어갔다 나오길 반복하다 ‘합평식구파’에 2004년 정착했다. 그리고 2008년 읍주운전과 공문서부정행사죄로 징역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

수형생활 막바지인 2009년 6월 합평식

구파는 범서방파와 통합됐다. 범서방파는 초대 두목 김태춘이 그해 11월 출소하는 것에 맞춰 70여 명까지 세를 불리고, 합평식구파는 오래된 조폭 집단인 범서방파의 이름을 얻는 ‘원일’ 통합이었다.

형기를 마친 A씨는 그해 가을 서울의 한 식당에서 열린 범서방파 조직원 회식에 참석해 인사했다. 이듬해 조직 단합대회에선 “우에 있게 생활 잘하자”며 건배사를 외쳤다.

경찰은 출소 후 식사자리가 A씨의 새

범서방파 정식 가입자리라 보고 그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현행법은 범죄단체에 가입만 해도 징역 2년 이상의 처벌을 하게 돼 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다. 애초 합평식구파였던 A씨는 자동으로 범서방파 일원으로 신분이 바뀌었으며, 검찰 주장대로 폭력단체에 ‘새로 가입’하는 죄는 저지르지 않았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A씨와 함께 범서방파 조직원 식사자리에 참석했다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다른 조직원(38)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연합뉴스

“배드민턴 치던 학교 관계자들이 욕설 등 리허설 방해”

중학교서 열릴 연극 공연 취소 논란

중학교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연극 공연이 학교 관계자들의 리허설 방해 등으로 취소됐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극단 토박이측은 지난달 22일 광주 모중학교 강당에서 연극 ‘모란꽃’ 공연을 준비하던 중 학교 관계자들의 리허설 방해 등으로 공연이 취소됐다고 밝혔다.

배우 등 10여명이 다음날 공연을 앞두고 오후 5시에 리허설을 위해 강당 조명을 끄자 당시 배드민턴을 치던 학교 관계자들이 화를 내며 위압감을 주고 욕설을 했다는 것이다. 이들은 리허설 없이는 공연을 못한다고 하니 학교장이 그러라고 말해 결국 공연이 취소됐으며 학교측의 태도를 비판했다.

극단 토박이는 지난해 5월 ‘오월 광대’

박효선(1954~1998)의 작품을 13년만에 무대에 올리며 주목을 받아 여러 학교에서 공연을 하고 있다.

학교 교장은 “일과 후 배드민턴을 치고 있는데 예고도 없이 불이 꺼졌고 부상 위험 등이 있어 운동하던 교사들 사이에서 “왜 불을 끄냐”는 소리가 나왔고 이 과정에서 다소 언성이 높아졌다”면서 “극단 쪽에서 ‘이런 학교에서는 공연을 못해’라는 말을 해 재차 확인한 뒤 철수하라고 한 것이지 리허설을 방해한 적도, 욕설이나 위압감을 준 적도 없다”고 해명했다.

한편, 광주시교육청 감사관실은 극단 관계자 및 학교장·교사 등을 상대로 진상 파악에 나서는 등 감사를 진행중이다.

/김지용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 먹거리 안전…348건 방사능 검사 미검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 서부도매시장과 마트, 재래시장 등에서 수산물, 가공식품, 농산물 등 348건에 대해 방사능 오염 여부를 검사한 결과 모두 방사능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6일 밝혔다.

연구원은 일본 방사능 오염으로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감이 지속하고 있어 방사능 오염 여부 검사를 했다.

검사 대상은 시민이 즐겨 찾는 품목을 중심으로 수산물 163건, 가공식품 83건, 농산물 82건, 축산물 20건 등이다.

특히 수산물은 모니터링을 강화해 고등어와 삼치, 갈치, 동태는 6개월 이상 매월 검사했다.

수입산 수산물은 중국, 노르웨이, 러시아 등 39건에서 모두 방사능이 나오지 않았다.

연구원은 또 영광 한빛원전과 관련해 방사능에 대한 시민 관심이 커짐에 따라 가장 인접한 광산구 삼도동 일대에서 재배되는 농산물과 광주시 도축장 축산물도 매번 모니터링해 ‘불검출’을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병태, 대구, 버섯류 등 시민 관심 품목에 대해 방사능을 집중적으로 모니터링해 먹거리 안전성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최원희기자 cki@

무안 수로에 빠진 차량 인양

운전자 차안서 숨진 채 발견

무안의 간척지 저수지에 빠진 승용차가 수중 수색 하루 만에 인양됐다. 운전자는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6일 무안경찰에 따르면 이날 오전 12시10분께 무안군 해제면 용화리의 한 저수지에서 쏜타 승용차가 구조당국에

의해 인양됐다. 운전석에서는 주모(70)씨가 숨진 채 발견됐으며 다른 탑승자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사고 차량은 지난 5일 오후 3시30분께 담수호로 돌진, 추락했으며 이 장면을 인근에서 지켜본 낚시꾼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과 119구조대는 잠수대원들을 동원해 수중 수색을 벌였으나 탄한 수질 등으로 수색을 중단했다가 이날 오전 수색을 재개했다. /김형호기자 khh@

집주인 기에 놀려 손목시계 건네고 달아난 ‘어설픈 도둑’

○…대낮에 주택에 침입, 절도 행각을 벌이던 ‘어설픈’ 도둑이 때마침 잠에서 깬 주인의 기지에 말려들어 구속될 처지.

○~6일 광주서부경찰에 따르면 이모(37)씨는 전날 오후 5시40분께 서구 화정동의 한 주택에서 물건을 훔치다가 맞닥뜨린 집주인 김모(46)씨의 완력에 놀려 흥진 물건(700만원 상당 의화)을 내려놓

은 데 이어 차고 있던 손목시계마저 건네 주고 범행 현장을 벗어났다.

○…자신보다 체격 조건이 월등한 집주인의 기(氣)에 놀려 한동안 낯을 잃고 근처를 서성거리던 이씨는 “아내가 돌아와 피해품이 없는지 확인되면 신고하지 않고 놓고 간 시계도 돌려주겠다. 우선 반성부터 하고 오라”는 집주인의 말을 따올러 순순히 범행현장에 되돌아왔다가 경찰에 체포. /김형호기자 khh@

유한회사 제이앤와이 도시개발은 NPL(부실채권) 채권매입, 매각, 중개, 경락잔금대출, 질권대출 & 부동산 컨설팅 등을 원스톱으로 처리하고 있는 부동산 전문기업입니다.

NPL 질권대출, NPL매입,매각 전문

(은행채권중개 및 근저당권부 질권대출 전문)
NPL대출 전국 특수 물건 90%한도 6.5%~
전국 최저금리!! 전국 최고 한도!! 중도상환 無

화순RPC공장채권 매각

토지 2070평 건물 449평 기계기구일체 7억상당
채권최고액 11억4천만원 전액 배당금 확보 됨.
채권매각가 9억원 문의 담당자 : 010-4557-3034

광주지역 추천물건 외 다수 물건 확보 되었으며 전국 특수물건 취급 가능
[법률자문업무협약 법무법인 자산]

전국 최대 우량 NPL 보유

NPL파트너스는 하나/기업/현대스위스/솔로몬 등 다수의 금융기관 담보부 NPL매입, MG질권대출협약, JB캐피탈 NPL사업협약,담보부 NPL 수익계약 매입/중개 4000억원 돌파, 수협중앙회 NPL 질권대출 수탁법인 승인된 NPL전문기업입니다.

경매 개시 이전, 이후 금융권 근저당권 채권, 개인 가압류채권 후 순위 근저당권, 가압류 채권 매입합니다.

NPL매입,중개,질권대출 담당 본부장 010-4557-3034
경매경락잔금대출지원담당 이 사 010-2170-3034

유한회사 제이앤와이도시개발

사업자등록번호 435-87-00319 / 법인등록번호 200114-0062461